

삼성SDI, PDP 판매확대 “승부수”

1-6월 43만대로 4.9% 증가 … HD급 PDP 공급확대로 영업손실 만회

삼성SDI의 2005년 2/4분기 영업이익이 1/4분기의 2배가 넘는 347억원을 기록했다.

삼성SDI는 2/4분기 연결기준 매출액 1조8382억원, 영업이익 347억원, 당기순이익 259억원을 기록했다고 7월 26일 발표했다.

영업이익은 1/4분기 156억원보다 무려 122.2% 증가했으나, 매출액은 1.36%, 당기순이익은 52.11% 감소했다.

단독 기준으로는 2/4분기 영업손실이 238억원으로 1/4분기 435억원에 비해 대폭 줄었고, 매출액은 1조3498억원, 당기순이익 259억원을 기록했다.

삼성SDI는 판매가격 하락과 원화 강세, 디스플레이 부문의 비수기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2/4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했으며, 3/4분기부터는 강도 높은 원가혁신 활동과 디스플레이 성수기로 영업실적이 크게 호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사업부문별 2/4분기 매출은 PDP 3500억원, 2차전지 1330억원, 모바일 디스플레이(LCD+OLED) 6270억원, 브라운관(CRT) 6930억원으로 2차전지는 전분기 대비 12.7%, 모바일 디스플레이는 8.1% 증가했다.

반면, 계절적인 수요감소와 경쟁심화에 따른 판매가격 하락으로 PDP 6.2%, 브라운관은 11.2% 감소했다.

특히, 모바일 디스플레이 판매량이 4500만대에 달해 전분기보다 25% 늘었고 2차전지도 13.2% 늘어난 4300만셀의 판매량을 기록했다.

PDP는 전분기보다 4.9% 늘어난 43만대를 판매했으나, 브라운관 판매량은 1430만대로 5.9% 감소했다.

PDP 중에서는 HD(High Definition)급 판매비중이 1/4분기 15%에서 2/4분기에는 21%로 늘어나는 등 고부가제품의 매출이 증가했으며, 2005년 판매량을 220만대로 2004년 87만대보다 153% 확대함으로써 세계시장 점유율을 31%로 높여나갈 방침이다.

삼성SDI는 PDP의 수급균형과 제조효율 향상, 원가혁신 등으로 3/4분기에 손익분기점을 달성하고 4/4분기에는 완전한 흑자구조를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.

2차전지는 2분기 연속 최대 판매기록을 달성하면서 세계시장 점유율을 1/4분기 11%에서 2/4분기 12%로 높였으며 하반기에도 신규고객 확보와 차세대 전기 개발 등에 주력할 방침이다.

브라운관은 판매량이 다소 감소했으나 대형 TV용 브라운관 비중이 1/4분기 33%에서 2/4분기 37%로 확대됐으며, 글로벌 생산거점 확보와 주요 고객 확보 등을 통해 지속적인 이익 창출에 주력할 계획이다.

삼성SDI는 현재 환율과 유가, 위안화 절상 등 대외 악재에 디스플레이 판매가격 하락 등으로 3/4분기 경영환경도 불투명하지만 수익중심의 경영과 고부가제품 확대, 원가절감 노력을 통해 하반기 영업실적 개선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.

<화학저널 2005/08/01>